VOICEYE
voiceye.com

손으로 보는 세상

2015 June
vol. 179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CONTENTS

02

03
점자로 말해요
여행

04
테마기획
오감으로 즐기는 이색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06
인터뷰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금빛 승리의 주인공.
유도 서하나, 이정민, 진송이 선수
볼링 배진형, 박태완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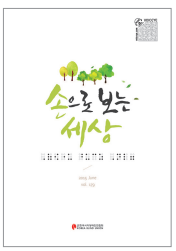
08
정보 PLUS
시각장애의 원인
: 고혈압성 망막증
월드 리포트
: 시각장애인 임산부도 태아의 초음파 사진 볼 수 있게 돼

09
함께 사는 이야기
도시농부_
정영진
(시각장애1급_부산광역시 동래구)

10
포커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거스히딩크 재단이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보를 함께합니다.

11
뉴스앨범
1. 2015지역순회재활교육 실시
2. 그림을 듣는다! 국내 첫 그림 해설 오디오북 보급

12
안내
시각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후원안내



손으로보는세상 2015년 6월 179호
발행일 2015년 6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그래픽오션 02.3422.5612 www.graphicocean.co.kr 캘리 임캘리 www.imcalli.com

VOICEYE
voiceye.com

풀과 나무가 초록빛으로 물드는 6월입니다.
푸르른 자연을 따라 여행을 떠나보세요.
여행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행

읽기형 ①④ ②⑤ ③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모음	ㅐ	ㅒ	ㅔ	ㅖ	ㅘ	ㅙ	ㅚ	ㅝ	ㅞ	ㅟ	ㅢ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약자	열	영	옥	온	옹	운	울	은	을	인	것		ㅆ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문장부호	:		;		줄임표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영어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ㅈ,ㅊ,ㅆ,ㅉ]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엉'으로 바뀐다.

손으로 역사를 만지다!
오감으로 즐기는
이색 박물관을 소개합니다.

'만지지 마세요'

박물관 관람 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예전에는 유리 전시관 안의 전시물을 보는 방법으로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는 것에서 나아가 듣고 만져보며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촉각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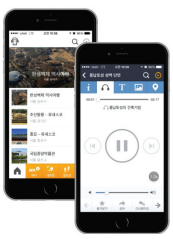
팝업카드

국립중앙박물관

촉각 전시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 공원 내에는 백제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2천년 전 백제의 모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곳으로 백제의 유서 깊은 유물이 가득합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기존의 눈으로 보는 전시를 탈피한 박물관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도 가득합니다. 칠지도 맞추기, 기와 퍼즐 맞추기, 돌무덤 쌓기, 토기 완성하기 등의 코너를 마련하여 관람객이 백제의 유물에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2013년, 시각장애인도 박물관의 전시물을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촉각 도록과 팝업카드를 제작하였는데요. 촉각도록에는 박물관 내 전시물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시물의 모양을 알 수 있도록 유물의 모양을 양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의 촉각도록은 구 서울시청사에 위치한 서울도서관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의 이촌역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구석기시대의 소박함, 삼국시대의 화려함 등 우리의 역사가 어우러진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은 바로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촉각 전시물 코너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시품 모형을 촉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비치된 헤드셋을 착용하고 오른쪽의 버튼을 누르면 전시물의 설명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촉각 전시물은 현재 총 6점으로 1층 상설전시관 내 6개 장소에 개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석기실에서는 주먹도끼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 청동기, 고조선실에서는 돌칼과 요령식 동검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부여, 삼한실에서는 쇠투겁창과 오리모양 토기를 접할 수 있으며 백제실에는 화려함이 물씬 풍기는 백제 금동 대향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5실에는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옥보가 위엄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전시 외에도 다채로운 문화 예술 공연이 있는 '박물관 문화향연'을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공휴일에 무료로 진행하며 관람객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투어 가이드

소개해드린 두 박물관은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 투어 가이드' 앱을 통해서도 관람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투어 가이드'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한 후 실행하면 박물관의 전시물을 음성을 통해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햇살 좋은 6월, 손과 귀로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박물관을 관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금빛 승리의 주인공, 유도 서하나, 이정민, 진송이 선수 볼링 배진형, 박태완 선수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에 황금빛 물결을 가져온 이들이 있습니다.
유도의 서하나, 이정민, 진송이 선수와 볼링의 김정호, 배진형, 고영배, 이윤경, 박태완 선수인데요.
이번 인터뷰에서는 유도의 서하나, 이정민, 진송이 선수와 볼링의 배진형, 박태완 선수를 만나보았습니다..**

유도_진송이 선수

**먼저 금메달 획득을 축하드립니다.
각자 운동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 **서하나 선수 :** 어릴 때 내성적인 성격을 바꾸어 보고자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유도부가 생겼는데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유도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유도를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 **이정민 선수 :** 저는 어릴 때 몸이 많이 약해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처음엔 운동을 취미로 삼기 위해 학교 유도부에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코치진의 권유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 **배진형 선수 :** 저는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볼링을 접하게 되었고 14살 때부터 본격적인 선수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치르며 가장 많이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 **진송이 선수 :** 제가 8년 만에 경기장에 다시 서게 된 데에는 서하나 선수의 힘이 컸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도 서하나 선수의 권유로 참가해 서하나 선수가 많이 의지되고 힘이 되었는데 더불어 좋은 결과까지 얻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태완 선수 :** 상대적으로 이번 경기대회는 합숙 기간도 짧았고 여러 힘든 여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코치진과 패기 넘치는 동료들 덕에 경기를 잘 치를 수

유도_이정민 선수

유도_서하나 선수

볼링_박태완 선수(왼쪽에서 세 번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를 준비하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 **서하나 선수 :** 현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조교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 선수촌에서 합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스스로 훈련과 일을 병행하며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 **이정민 선수 :** 비장애인 유도선수에서 시각장애인 유도선수로 전향하며 경기 규칙의 변화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여기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비장애인 유도선수였을 때 저의 특기가 잡기 기술이었는데 시각장애인 유도는 상대방을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저의 특기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6개월 정도 지난 지금은 이러한 경기 규칙에 적응이 되어 더 편하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각자 출전하셨던 경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일까요?

- **진송이 선수 :** 저는 우크라이나 선수와의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전에 그 선수와 겨뤘을 때 아쉽게 진 적이 있었는데 이번 경기대회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거든요.
- **배진형 선수 :** 경기대회 첫날 치렀던 개인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경기 결과는 은메달이었지만 경기방식이 바뀐 후 개인 기록을 경신한 경기였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경기대회 중 가장 즐거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 **박태완 선수 :** 저 역시 이번 경기대회에서 이전에 만났던 선수와 다시 겨루게 되었는데요. 말레이시아 선수와 9년 만에 다시 만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없을 때는, 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 **서하나 선수 :** 원래 운동을 좋아해서 휴식 기간이면 자전거 라이딩을 자주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새벽 훈련지도 등으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아쉬운 마음입니다.
- **이정민 선수 :** 휴식 기간에는 제 또래 친구들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요. 또 음악을 좋아해 편한 자세로 음악을 감상하며 보내기도 합니다.
- **진송이 선수 :**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 쉬는 기간에는 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일이 많습니다. 이번 경기대회를 치르던 중에도 허리디스크가 재발하였는데 틈틈이 치료를 받아 얼른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 **이정민 선수 :** 제 방에는 '남과 같으면 남들 이상으로 될 수 없다'라는 좌우명이 걸려 있습니다. 유도를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결과는 자연스레 따라오기 마련이니까요.
- **배진형 선수 :** 저는 운동보다 사람을 먼저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분들 밑에서 볼링을 배우며 실력뿐만 아니라 존중과 배려의 마음도 함께 키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존중과 배려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 **박태완 선수 :** 꿈과 희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운동은 한정되어 있고 제도적인 부분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번 2015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시각장애인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링_배진형 선수

시각장애의 원인

고혈압성 망막증

원인이 무엇이든 혈압이 높게 지속되면 혈압의 정도나 지속 시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와 정도의 망막증이 생기게 됩니다. 고혈압의 주요 원인으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본태성 고혈압이 가장 흔하며, 그 외에 임신중독증, 콩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구체신염 등이 있습니다.
고혈압은 가느다란 동맥의 혈관 긴장도에 항진이 일어나고 혈관이 가늘어지는 증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동맥경화 증상도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 혈액순환 장애를 동반해 혈관내피세포가 손상되어 망막에 출혈이 생기게 됩니다. 혈액 성분이 누출되어 삼출물로 인한 부종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고혈압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눈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각종 망막 변화가 생기게 되고, 결국 눈의 중심부인 황반부의 변성과 함께 시신경이 위축되어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월드 리포트

시각장애인 임산부도 태아의 초음파 사진 볼 수 있게 돼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특별한 선물을 받은 산모가 있습니다. 17살 때 시력을 잃은 브라질의 시각장애인 산모 구에라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구에라 씨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 후 아이를 갖게 되었지만 다른 임산부처럼 초음파 화면으로 아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브라질의 유아용품 전문 업체는 3D 프린팅 업체와 함께 초음파 영상에 찍힌 태아의 얼굴을 3D 기술로 프린트하여 조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된 조각상은 구에라 씨에게 전달되었고, 설레는 마음으로 조각상을 받아든 구에라 씨는 태아의 얼굴을 손끝으로 느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벤트를 기획한 브라질의 유아용품 전문 업체와 3D 프린팅 업체는 앞으로 구에라 씨 외에도 더 많은 시각장애인 산모들에게 기적의 순간을 선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voiceye.com VOICEYE

도시농부

정영진(시각장애1급_부산광역시 동래구)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아버지 살아 계시면서 정년퇴임 후 어머니와 함께 노후를 보내기 위해 옛집을 허물고 다시 지었었다. 이층에는 두 분이 사시고 아래층은 세를 놓았다. 옥상에는 아버지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꽃나무와 온실까지 만들었다. 그 안에서 조각 작품을 만들고 밖에는 큰 고무통에 각종 채소와 나무를 심었다. 가을에는 국화꽃 향기 가득한 꽃밭을 일구셨다. 색이 노란 대국, 들국화처럼 작은 소국 등을 키우며 소일 하시다가 10년 전에 생을 작별하시고 향 내음을 따라 멀리 하늘나라로 떠나셨다. 어머니가 혼자 계셨는데, 우리가 들어와 살게 되었다. 지금은 어머니와 우리부부 딸, 3대가 같이 산다. 물론 옥상 전체가 나의 텃밭이 되었다. 아버지처럼 국화꽃은 키우지 않지만 채소와 나무를 키운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루하루 땀 흘려 살아가는 '도시농부'의 일 년을 글로 엮어 본다. 양력으로 2월 4일인 첫 절기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온다. 눈이 아닌 비가 내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나의 한해 농사는 시작된다. 옥상위에 올려놓은 큰 항아리에 깻묵을 넣고 물을 부어 겨우내 삭힌 거름을 퍼서 큰 물통과 화분에 듬뿍 준다. 3번째 절기인 '경칩'이다. 숨어있던 벌레들이 놀라 깨어난다는 뜻이다. 다음엔 아직 춥긴 해도 분명히 봄기운을 느낄 수 있는 네 번째 '춘분'을 맞는다. 시골 농부들은 4월경에 씨앗을 뿌리지만 우리는 완두콩과 양대콩을 비닐로 싸서 좀 일찍 심는다. 사흘에서 열흘쯤 지나면 어린 싹들이 고개를 내민다.

이제 가장 좋은 계절을 뜻하는 절기인 '청명'

날씨가 맑다는 뜻이 있고, 어원을 찾아보니 중국의 황하가 이시기에 가장 맑아 이렇게 명명했다고도 한다. 여하튼 농사로 바빠지는 시기가 시작된다. 담 벽에 붙여놓은 큰 화분에 호박씨를 심고, 상추씨도 손가락으로 찔러 세 개씩 돌아가며 두 통을 심었다.

남아 있는 큰 통은 오이와 가지 씨를 뿌리고 작은 화분들에는 시장에 나가 고추모종을 사와 12개를 심고 대를 꽂아 끈으로 묶었다.

'하지'가 오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다. 양력으로 7월이다. '하지' 전까지 고생하며 농사지으시고 가슴 졸이는 장마와 태풍도 지나가고 농사도 너무 더워 옥상에 다니기 조차 귀찮다. 모두 잘 크겠지. 그냥 보는 시기로 들어선다.

'입추'가 지나고는 열네 번째 '처서'가 나오는데 여기서 '처'는 쉰다는 의미다. 더위가 한풀 꺾이고 모기입이 삐뚤어진다는 시기다. 여름 내내 키웠던 채소들을 모두 뽑아내고 흙을 뒤집어 옥상 바닥에 말린다. 그러고서는 여러 가지 식물들의 잎과 가지를 분리하여 땡볕에 말린다. 잎은 잘라 화분아래에 밑거름과 같이 넣고 흙을 덮는다. 지금부터는 가을 김장채소 배추, 무를 심는다. 몇 해를 해보지만 무는 잘 되는데 배추는 이파리가 여린 탓인지 배추벌레들이 극성이다. 내 어머니는 "벌거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먹겠다."고 하신다.

'입동' 다음에 '동지'가 지나 양력으로 1월이 되면 본격적인 추위가 온다 해서 찰'한'자를 뒤에 붙여 '대한'으로 절기를 끝맺는다.

여름내 수확했던 가지와 고춧대 말린 것들을 다듬어 겨울에는 햇볕이 좋을 때는 온실로 들어가 나일론 끈으로 가지를 엮어가며 바구니도 만들고 여러 모양을 꾸미며 도시농부의 한해를 마감하게 된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거스히딩크 재단이

시각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보를 함께합니다.

경기도 이천 드림필드 경기장

지난 5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 1층 이룸홀에서는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와 거스히딩크 재단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히딩크 전 국가대표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시각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으로 2005년 거스히딩크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거스히딩크 재단은 소외 어린이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풋살 경기장 규모의 '히딩크 드림필드'를 전국에 건립해 기증하고 있으며 5월 8일에는 이천시에 13번째 드림필드 경기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이번 MOU 체결로 거스히딩크 재단은 한시련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체험센터에 드림필드 경기장을 지원하게 되며, 한시련과 함께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에 공동 협력하게 됩니다.

MOU 체결로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거스히딩크 재단이 펼치게 될 행보가 기대됩니다.

VOICEYE
voiceye.com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01.

01. 2015지역순회재활교육 실시

지난 5월, 서울, 강원, 경기, 충남, 광주, 제주, 전북지부에서는 지역순회재활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7개의 지부에서 실시된 지역순회재활교육은 지부별 1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이 참석하였으며, 교육에 참석한 시각장애인에게 올해 변경되는 장애인 복지정책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지역순회재활교육이 계속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역순회재활교육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각 지부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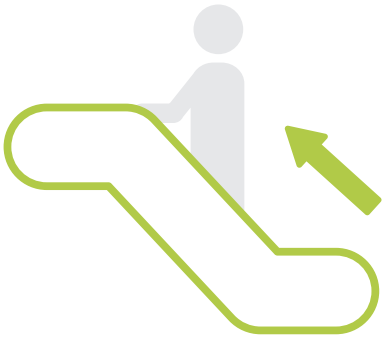
02

02. 그림을 듣는다! 국내 첫 그림해설 오디오북 보급

지난 5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국내에서 첫 번째로 그림해설 오디오북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번 오디오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동화의 내용을 들려주는 것은 물론 그림에 대한 해설을 덧붙여 아이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림해설 오디오북을 통해 시각장애 아동의 상상력에 날개를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VOICEYE
voiceye.com

시각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



시각장애인과 함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는 우선 한쪽 손은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게 하고 옆에 서서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스텝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안내자는 한발을 한 계단 위에 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형마트 등의 무빙워크를 이용할 때도 한쪽 손으로 손잡이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 · 중 · 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 · 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6925.1137　F 02.6925.1117　www.kbuwel.or.kr